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공학과	학 번	201**324	성 명	최상기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교	파견학기	2015-2
소요경비	비행기 + 체재비 + 여행비 = 약 1000만원 정도				
주거	예나에도 여러 곳의 기숙사가 있지만, 예나 응용과학대학교에서 가장 인접한 2개의 기숙사는 carl zeiss promenade와 siegfried czapski 기숙사가 있다. 전자는 학교안에 있는 것으로 걸어서 1분이 걸리며, 후자는 걸어서 5분 걸리는 위치로 둘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기숙사 비용은 한달에 210유로 정도이며, 디파짓은 300유로이다.				
룸메이트	제가 지낸 siegfried czapski 기숙사는 5명이 하나의 house를 share하는 형태이고, 방은 약 10평이 넘는 정도로 아주 넉넉한 공간이며 같이 화장실과 샤워실을 share하는 roommate들은 모두 독일인이었다. 워낙 개인적인 life를 즐기는 친구들이라 같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기숙사 내 한국인	제가 지낸 곳에는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인이었다.				
파견대학 정보	예나에는 크게 2학교가 있다. 예나 대학교와 예나응용과학대학교. 그 중 예나응용과학대학교는 engineer를 양성하는 연구기관으로 실험실과 lab실이 아주 잘 setup되어 있었다. 교과목중 optic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직접 연구 장비를 만지며 실험할 수 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예나응용과학대학교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있다. 부서의 직원들은 교내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영어를 잘 하는 편이라,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email을 통한 contact이 원활하여 빠른시일안에 메일을 통해 답변도 얻을 수 있다.				
주말 및 여가활동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수업이 없어 long weekend를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주말에는 독일 내를 여행하였고, christmas vacation같은 경우는 서유럽 전체를 여행할 수 있었다. 남은 spare time에는 주로 도서관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처음 기숙사를 배정받고 나면 멘토로 부터 연락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멘토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다.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인 멘토를 만나 독일에 입국하자마자 중요한 서류처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전공	금요공과대학교에서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예나응용과학대학교로 파견되는 모든 학생은 scientific instruments라는 전공을 가지고 석사 1학기 공부를 하게 된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specific한 major는 아니지만 견문을 넓히기에 아주 좋은 전공이다. 교과목으로는 fem, design of precision device, opic, microsystem engineering, embaded system, solid physics 등이 있다.				
수업	전공과 교양의 개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 그룹을 묶				

스케줄	어 1학기 전체의 스케줄을 제공한다. 본인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과목을 들었으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만 수업을 듣는 형태이다. 중간중간에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본인이 원할시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학생할인 관련	먼저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토스카(toska)라는 학생증을 받게 된다. 본인이 느낀바로는 여권은 잃어버려도 토스카는 잃어버리면 안될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카드이다. 학생 식당에서 토스카만 있으면 1dish를 보통 2.5유로 안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튀링겐 주 안에 모든 교통수단은 공짜이다. 그리고 유럽 여행 시 이 학생증만 있으면 많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공짜로 들어가는 혜택을 받는다.(ex 루브르, 오르쉐)
ISIC카드 활용	본인은 없었다.
영어공부	영어공부를 따로 책을 보며 하지는 않았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였고, 모든 report작업을 영어로 적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 그리고 주로 인도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며 대화하고 놀며 회화가 조금 느는 것 같다.
여행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벨기에, 네덜란드 크리스마스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돌았으며 중간중간에 체코, 영국 그리고 독일 내 여행을 진행하였다.
교통	예나안에서는 버스만 타고 다니고, 예나를 벗어난 지역은 기차나 버스를 탄다. 기차가 좋긴하나 가격적인 면이 많이 부담되어 버스가 경제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가까운 유럽 국가를 여행할 시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면 아주 싼 경비에 여행할 수 있다.
날씨	독일의 겨울(예나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춥지 않다. 한국보다 분명 눈은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온도가 더 낮지는 않다. 다만 조심하여야 할 것은 생각보다 건조한 날씨에 손과 얼굴이 많이 트게 된다. 꼭 로션을 챙겨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외인턴	인턴쉽이 있긴하나, 보통 2년과정으로 오는 인도친구들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학기 또는 2학기 학생에게 주어지는 인턴은 찾기 힘들다.
추신	독일에서의 식생활은 참 단조롭다. 사람들은 먹을 것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 매일 감자와 소세지 또는 빵만 먹으며 살아간다. 예나에는 아시아 마켓은 있지만 한국제품이 많은편이 아니라, 본인이 식탐이 있다면 중요한 식품은 챙겨가길 바란다.
보완점	유럽에서의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다. 영어 때문에 힘든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경우는 타 전공과 수업을 중간과정 없이 석사과정으로 듣다보니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또한 한국보다 길어 조금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학점을 오히려 적게 인정해주는 것이 참 의문이 들었다. 이 점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다.